

엔터테인먼트

Entertainment

SBS 드라마 '대물' 배우 차인표 합류

배우 차인표가 오는 10월 방송 예정인 SBS TV 드라마 '대물'에 합류했다.

21일 '대물'의 홍보사에 따르면 고현정, 권상우가 일찌감치 남녀 주인공으로 캐스팅된 이 드라마에서 차인표는 카리스마와 리더십을 겸비한 '훈남' 정치인 강현석 역을 맡았다.

강현석은 고현정이 맡은 서해림과 애증의 관계로 엮인다. 박인권의 동병 인기 만화를 원작으로 한 '대물'은 변호사 서해림이 인권 운동으로 명성을 쌓은 뒤 대선에 출마, 우여곡절 끝에 우리나라의 첫 여성 대통령에 당선되는 이야기다.



첫 연극 도전 문근영

무대 서고 싶었다

“처음에는 (연극 연기를) 하겠다고 달려들었는데 지금은 (개막이) 다가올수록 불안하고 겁이 나네요.”

다음달 정통 멜로극 '클로저'로 처음 연극에 도전하는 '국민 여동생' 문근영이 최근 서울 마포구 상암동 CJ E&M센터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밝힌 소감이다.

문근영은 하지만 “예전부터 연극 무대에 서고 싶었고 앞으로도 연기를 하게 되고 배우로 일하게 된다면 무대에 대한 열망이 있을 것 같았다”면서 “(기존에는) 닫혀있던 것을 빨리 이겨내고 싶었다”고 도전 배경을 밝혔다.

그녀는 “지금 도전하면 아직 못하니까, 어리니까 채워 나가면 되지만 나이 들어서 하면 더 신경쓰이고 자존심도 상할 것 같았다”면서 “열심히 연기하려고 매일매일 생각하고 연습하고 있다”고 각오를 다졌다.

'클로저'는 런던에 사는 남녀 네명의 엇갈린 사랑과 배신을 그려낸 작품으로, 문근영은 우연히 만난 남성 '댄'과 사랑에 빠지지만 그의 바람기 때문에 상처받고 갈등하는 스트립댄서 '앨리스' 역을 맡는다.



“불안하고 겁 나지만
내 안에 닫혀있던
열망을 꺼내 놓겠다”

문근영은 실제로 치명적인 사랑을 경험했는지에 대한 질문은 “없다고도 못하졌고 있다고도 못하겠다”면서 웃어보이고 “연기를 경험에 비해서 하게 되는 것도 있지만 경험도 없고 잘 모르는 장면에서도 상대 배우와 만나 연기하면서 캐릭터를 알게 되는 것 같다”고 답했다.

그녀는 이어 스트립댄서 역할을 맡은 데 대해 “기사를 보니까 조금이 스트립댄서로 변신한다는 데 맞춰져 있더라”면서 “스트립댄서 수위가 높아서 출연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앨리스라는 캐릭터가 마음에 들어서 출연한 것이어서 속이 상하기도 했지만,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부고 담당 기자인 바람둥이 '댄' 역할을 맡은 엄기준은 “행복합니다”라며 문근영과 호흡을 맞추게 된 소감을 밝히고 “(관객들이)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알고 싶지 않은 감정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작품 분위기를 소개했다.

패트릭 마버가 쓴 '클로저'는 1997년 런던에서 초연된 이후 세계 각국에서 꾸준히 공연되고 있으며 2004년에는 나탈리 포트만과 주드 로가 주연을 맡아 영화로 인기를 끌기도 했다.

악어컴퍼니와 CJ엔터테인먼트, 나무엑터스가 공동 기획한 '무대가 좋다' 시리즈의 두번째 작품으로, 조항터 악어컴퍼니 대표가 연출을 맡았다.

조 대표는 “클로저는 2005년부터 꾸준히 국내 무대에 올랐지만 이번 공연은 극중 배경도 런던으로 설정하는 등 원작에 최대한 가깝게 연출했다”면서 “문근영은 첫 연극이어서 연습을 시작한 처음 며칠간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금방 따라잡고 앨리스 역할에 접근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연협뉴스

3년만에 국내 복귀 세븐

무대가 그리웠다



“미국 시장 높은 벽 실감
꿈은 펼치지 못했지만
나에겐 약이 된 시간”

긴장감이 도는 사이렌 소리, 날카로운 전자음이 공기를 찌르는 가운데 세븐(본명 최동욱·26)이 무대에 등장했다.

지난 20일 서울 강남의 한 클럽에서 열린 '세븐 디지털 바운스 릴리즈 파티' 현장. '쿵쿵' 힙합 드럼 비트, 푸른 레이저 조명 속에서 그의 춤사위는 날렵했고 여유로웠다. 이 무대는 미국 진출을 위해 공백기를 가진 그가 3년8개월 만에 낸 미니앨범 '디지털 바운스(Digital Bounce)'의 신곡을 처음 소개하는 자리였다. 세븐의 복귀를 기다린 한국과 일본 팬 350여 명이 토해내는 열기로 비좁은 실내는 후끈할 정도였다.

세븐이 잘 나가던 가수였지만 며칠만에 시장의 주도권이 바뀌는 '가요계 타일'을 고려할 때 3년여의 공백기는 원점을 각오한 모험이었다. 이를 감수하고 2007년 미국 진출을 위해 건너간 '기회의 땅'에서 그는 만족스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대중에게 허송세월처럼 보인 3년여에 대한 세븐의 소회는 꽤 진지했다. 무대에 대한 향수병과 배고픔, 양 대표에 대한 원망도 있었다고 했다.

“팝 시장 진출이라는 당초 목표를 못 이룬 게 맞아요. 사실 영어, 음악 등 준비 기간이 길었고 미국서 디지털 싱글 한국만 발표했기에 제대로 된 데뷔라고도 할 수 없었죠. 꿈을 펼치지 못한 아쉬움이 커요. 하지만 그곳에서 음악, 춤을 배웠고 인간적인 깨달음도 얻었어요. 좋게 말

하면 약이 된 시간이지요.”

직접 경험한 미국 시장에서 느낀 장벽은 꽤 높았던 듯 했다.

그는 “미국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가수의 талант, 음악, 프로모션 등 삼박자가 갖춰져야 하는데 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또 언어, 동양적인 외모 등 보이지 않는 장벽도 높았다”고 털어놓았다.

“상투적인 표현이 아닌 정말 신인의 자세가 됐다”는 세븐은 복귀를 위한 '세팅' 작업에 1년이 걸렸다고 했다. 가장 큰 고민은 반드시 진화했다는 평가를 들어야 할 음악이었다. 그의 선택은 일렉트로닉과 힙합의 조화였다. 세계적인 음악계 흐름인 일렉트로닉 사운드에 힙합 비트를 더하고 세븐 특유의 허스키한 미성을 얹었다. YG의 대표 프로듀서인 테디와 새로이 YG에 영입된 신에 프로듀서 최필강이 힘을 보탰다.

인트로 '리셋(Reset)'부터 박박의 탭이 곧 퍼쳐링한 두번째 트랙 '디지털 바운스'로 이어지는 트랙은 현란한 전자 소스에 반박되는 코드의 멜로디가 전개돼 중독성 이었다.

세븐은 “아이돌 그룹이 국내 가요계 흐름이더라”며 웃은 뒤 “빅뱅과 투에니원의 성장은 무척 뿌듯하다. 이들은 그룹 내 각자 맡은 분야가 있고 음악 색깔이 뚜렷하며 패션 트렌드까지 주도한다. 미국에서 비디오를 빌려 가요 프로그램을 보면서 어떤 신인이 나오는지도 봤고 그 무대를 볼 때면 몸이 근질근질 했다”고 다시 웃었다. 그는 국내 복귀와 함께 한때 탄탄히 닦아왔던 일본 활동도 재개한다. 10월께 국내에서 정규 음반을 낸 이후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일본 활동에 매진할 계획이다.

연협뉴스

<p>조이 여행사</p> <p>234-3222</p>	<p>남정 SHOW-월 549,000-</p> <p>남정 SHOW-월 579,000-</p> <p>남정 SHOW-월 629,000-</p> <p>남정 SHOW-월 699,000-</p>		
<p>신로</p> <p>359,000</p> <p>549,000</p> <p>538,000</p>	<p>세우드</p> <p>119,000</p> <p>175,000</p> <p>159,000</p> <p>259,000</p> <p>289,000</p> <p>279,000-309,000</p> <p>180,000</p>	<p>★마이크로작업★</p> <p>149,000</p> <p>149,000</p> <p>129,000</p> <p>129,000</p> <p>149,000</p> <p>129,000</p>	<p>★베트남 노골보다아 작업★</p> <p>000,000</p> <p>129,000</p> <p>129,000</p> <p>129,000</p> <p>129,000</p>